

다니엘 33 강

계속해서 다니엘서 9 장 12 절부터 15 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심으로 우리와 우리를 판단하였던 우리의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정하셨으니 이는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행해졌던 것과 같은 일이 행해지지 않았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거나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즉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재앙을 지켜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오셨으니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 의로우시나 우리는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백성을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낱낱히 고백합니다. 자기까지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 민족을 깨끗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이 고백한 가운데 12 절 보면 [우리를 판단하였던 우리의 재판관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하여 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이게 영어로 보면 against 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쳐서, 재판관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항하여 이런 애깁니다. 그들을 against 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정하셨으니 이는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행해졌던 것과 같은 일이 행해지지 않았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50 편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재판할 수 없습니다. 재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재판장으로 세웠던 제사장들, 사사들도 말씀으로 재대로 하지 못했죠? 시편 50 편에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란 말씀이 나오고 이 재판관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재판관들에 대하여 어떤 심판을 할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이지 않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나옵니다.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대부터 해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의 주위에는 관풍이 불리로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가 재판장이심이라. 셀라.]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십니다. [오 내백성이 들을지어다] 이걸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계속해서 내 앞에 드러진 네 희생제나 네 번제로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으리라.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들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요 일천 산위의 가축들도 내 것임이라. 내가 산의 모든 새들을 알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라. 내가 설령 굶주릴지라도 내가 말하지 않으리니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서원들을 갚으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 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하노라. 네가 내 규례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또 내 언약을 네 입에 두기 위하여 네가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네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네 뒤에 던지는 도다. 네가 도둑을 보면 그와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는 속임수를 발하는도다. 네가 앓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그것들을 네 눈 앞에 정연하게 두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 아무도 구해 낼 자가 없으리라.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교회, 이 세상의 심판이 결국 하나님만이 재판장인데 사람의 뜻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이것을 알고 고린도전서에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란 것은 영적인 말씀을 다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항상 자기가 판단을 받습니다. 기도할때마다 판단을 받고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을 판단할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할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뒤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할 때 내가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공박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하나 하나 판단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요 그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기때문에 일차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임 당하고 무참하게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 보면 법정이 있지요. 법정이 있는데 증인들이 선서할 때는 옛날에는 성경을 놓고 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하는데. 말로는 성경에 놓고 하고 대통령도 취임할 때 대법원장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하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재판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법정의 판사들은 대통령에게 위임받은 사람들이예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법정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하는게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법으로 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것이 바로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바로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하는 것 돈 많은 사람들은 봐주고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은 업신 여기고 큰 죄인들은 봐주고 조그만 죄인들은 엄하게 대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때문에, 심판이란 것은 하나님이 재판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시편 50 편은 하나님이 재판하시러 불 가지고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전부 이게 예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인류역사 6천년 동안에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다 계산하십니다. 가만히 있지요 지금은. 오래 참고 계시죠.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아무일도 안 일어나네. 아무리 하나님을 욕해도 아무일도 안 일어나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단이라 그래도 아무일도 안 일어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신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판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판단할 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걸 가지고 판단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해라. 하나님밖에는 판단 못한다. 당신은 나를 판단못해.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재판관이신 주님께서서는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재판관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Against, 즉 대적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확정했다 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대환난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동안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 되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해요. 오히려 회개를 안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점점 악해집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점점 의롭게 되고 악한 자들은 점점 악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다니엘이 똑같이 예언한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때가, 요한계시록 22 장 11 절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마지막 메세지입니다. 다니엘서 12 장 10 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점점 악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악하게 만든 거예요. 정말 의로운 마음을 착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점점 의롭게 합니다. 내 마음에 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점점 악하게 만듭니다. 강박하게 한다고 그러죠 개역 성경에 보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죠? 예루살렘에게 행해졌던 큰 재앙은 온 하늘 아래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심판의 메세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교회나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다 대환란에 넘어가서 그때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심판을 안받죠. 자동적으로 주님이 데려가죠. 이 성경을 자세하게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심판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도 없어요. 환란 때에 가면 믿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때가 되어 가지고 그들이 행했던 악때문에 재앙이 내릴 때 무차별하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할것 없이 무차별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기때문에 오늘 교회에 대한 메세지가 그거예요. 쫓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오늘날 마지막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역대하 36 장 17 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갈데아 왕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바벨론 왕을 보내셨던거예요. 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했거든요. 야곱이라는것은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 받는 때예요. 그때는 큰 바벨론 밑에서 보다는 더 고난을 받죠. 옛날 느부갓네살은 저리가라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예요. 적그리스도 에 비하면. 그러니 이게 대환란이란게 엄청난건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잖아요. 요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거의 듣지를 못해요.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성경 전체가 오신다는 얘기 아네요? 끝날때 어떻게 끝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도 전하지를 안해요. 엉뚱한걸 전해요. 12 절에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이는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행해졌던 것과 같은 일이 행해지지 않았음이니이다.]** 참 느부갓네살은 남녀노소 차별하지 않고 성전의 기명들 왕궁의 보석들 다 뺏어갔죠? 성전을 불살랐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담무스를 섬기고 여인들이 담무스를 섬기고 우상들을 섬겼다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꾸로 등을 대고서 우상을 섬겼다니깐요. 요즘에 뭐예요?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우상을 섬겨요. 정육, 물질,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기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옛날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교회도 거룩한 자녀 백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판이 임해요. 심판때라도 회개하면 되죠. 정말 그때는 목이 찢려지지 않으면 기회가 없죠? 이런식으로 끌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죠? 성경에 보니까 땅이 안식하였으니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년을 지켜 70 년을 채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안지켰어요. 안식일이나 안식주나 안식달이나 안식년을 꼭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안지켰어요. 원래는 6 년동안 땅을 농사짓고 추수하고 먹고 그 다음에 7 년째 가만 두라고 그랬어요. 그럴때 나그네와 과부들이 먹는다. 이렇게 쉬게한다. 사람들이 쉬는 것처럼 땅도 잘 쉬어야 그 다음에 열매를 조성할것이 아니냐? 그대신 7 년째는 주신다 그 얘기죠. 옛날 만나를 내릴 때도 안식일 전에는 두배로 줬잖아요. 그런식으로. 이 사람들이 결국은 490 년동안 70 번에 걸쳐서 안식년을 범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갔다와 가지고 땅이 쉬게 했거든요. 그 땅이 안식하였다. 땅도 좀 쉬게 해야죠. 요즘도 보세요. 땅이 쉬게 못하잖아요. 케미칼 갔다가 뿌리고 뭐 벌어 먹을려고 난리를 치잖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또 유전자를 변형시켜 가지고 크기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팔아 가지고 돈 벌라고 그러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죄악이죠? 다른 사람들 그런 것 먹고 병들어 죽는건 둘째치고 돈만 벌면 되잖습니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잡아다가 판결을 내렸죠?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 두눈을 뽑아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낫사슬로 묶어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을 끌고 갈 때. 고기를 잡아 가지고 낫시 줄에 끌고 가는것처럼 그렇게 끌고 갔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끌고 갔는지 몰라요. 시드기야는 죽을 때까지, 자기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죽고, 가슴을 쥐어 뜯으며 살았을 거예요. 참 이렇게 이스라엘 이 거룩한 땅이 황폐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임했던 것은 인류역사상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주님이 그랬죠? 앞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돌위에 돌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원 70 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했죠? 그럴때 500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성벽 밖에서 십자가에 처형 했습니다. 그대로 갇아 주시는 거죠. 성벽은 불타버리고요. 얼마나 불이 탔는지요 성전 꼭대기를 금으로 입혀 놨는데요 금이 녹아 내렸어요. 그 정도로 불을 태웠어요. 웬만해서 금이 녹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금이 흘러 내려서 성전 전체로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금을 캘라고 사람들이 산산조각을 낸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이 판단하는 재판관의 말씀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되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입도 뿡긋하면 안됩니다. 성경에서 무슨 일이 있을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지 내 생각으로요, 재직회때 내 생각으로요, 이걸 안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만 그런가요? 주의 종들도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어떤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성경을 놓고 한번 서로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얘기하자 그러드래요. 말씀이 딸리니까. 이걸 말이 안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고요.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누가 옳은가? 그런데 모르니까 대항이 안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머리에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도 말씀으로 다 대답을 해야 되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판단을 못해요. 하나님만이 판단을 할 수 있단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말씀을 다 모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되요.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왜? 그때는 민족적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자기 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라고 한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만드신 것일까?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선택된 도시였죠. 예루살렘은 특권이 부여된 도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지상의 수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9 장 3 절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 곳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 보시니까 잘못하면 큰일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켜 보는 곳이 어딥니까? 교회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 보십니다.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꼭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말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받을때 각자가 깨닫게 하는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어떻게 나한테 말하시냐? 그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거지 다른 사람에게 하는게 아네요. 아까 시편 50 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난 아니야 하고 등을 돌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받아야 되요. 그래서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한 말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시험에 든단 말예요. 이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무서운 애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할 것을 들으면 회개 안하고 오히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요즘에 회개 하는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멕시코에만 가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마약하던 사람들이 다 회개해요. 엉덩이 쳐들고 엎드려 가지고요. 그걸 볼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회개가 없어졌다. 아 뭐 내가 회개할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됐단 말예요. 말씀을 안보니까.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것ियो.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겠다. 또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아. 함부로 목사가 되지 말아라 이거죠? 말씀을 먹어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그렇게 되기 전에는 (목사)되지 말아라. 이런 애깁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많이 오는것도 두려운 거예요. 더 많이 달라고 그럴텐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한단 말이죠. 그러기때문에 많이 하는게 정욕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목사님들이 더 많이 끌어 모으려고 하는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주시는대로 한사람 한사람. 주님도 12명 데리고 다니셨는데요. 그 당시에도 주님을 안 따라 왔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자 13 절에 두번째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진리를 깨달도록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지 않았나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요즘에 이런 회개하는 사람이 있나요? 진리를 깨달도록 기도하지 않았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죠? 그리고 주의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란 것은 진리를 깨닫고 그대로 행할 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것은 우리의 혼이 깨끗해 지는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 절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이 정결케 되었다. 그러므로 가식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되요. 우리 혼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깨달아야죠. 왜 요즘 사람들이 말씀을 듣긴 하지만 행하지 못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모른다. 너희가 슬퍼도 기뻐하라. 너희는 모른다 왜 기뻐해야 되는지. 마귀가 슬픈 일을 갖다줘도 내가 기쁜 좋은 것 가지고 가니까 미리 기뻐하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 주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실려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기뻐요. 감사하라. 아까 나왔죠?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죠? 제사가 뭐죠? 제사라는건 죽이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어려워도 나를 죽이면서까지 내 마음을 죽이면서까지 감사하는 것. 이게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이란것은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진짜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죽여 버리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 할렐루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프고 어려워도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찬양을 드리는 자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요즘 경배와 찬양이 아닙니다. 다들 잘먹고 잘사니까 멋진 옷 입고 나와 가지고 생글 생글 웃으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암이 걸려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암이 걸려도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찬송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도록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요즘에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나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한국 교회 목사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온 땅에 모든 교회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뭔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니까 아 이게 진리를 깨닫도록 기도하지 않은게 죄구나. 이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빛이 비춰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14 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재앙을 지켜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오셨으니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 의로우시나 우리는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음이니이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앙을 당해도 나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할말이 없다는 거죠. 양심시대에 말입니다. 고려시대에 정몽주같은 사람은 이성계가 그렇게 자기에게 오라는 데도 이 몸이 죽고 죽어 일 백번 죽고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도 님 향한 일편단심이 가실 줄이 있으랴 그랬어요. 그때 양심적인 사람이예요. 그때는 양심시대 거든요 그 사람들이 백보좌 심판에 설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양심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예요. 이순신 같은 사람도. 열몇번 죽을 뻔했죠? 왕에게 거역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 사람들은 행위록이 있는 거예요. 백보좌 심판에서 다 지옥가는게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만 불못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됐지요 주님 믿으니까. 그러니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요. 그때가서 생명책도 있고 행위책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불못에 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다 영원세계에 있는 새땅에 들어가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양심 때문에, 양심 시대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2500 년 동안에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노아때 죽은 사람들도 수없이 죽었지만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놓고 주님이 가서 전파하셨다니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이런 분이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신라 백제 시대에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지옥간다 그래요. 야 자기가 하나님이더라구요. 어떤 젊은 청년이 그래요. 아 그러면서 성경에 리비아단을 악어로 해놓은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래요? 리비아단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아버지보고 아들이 큰일 났다. 교만해져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다. 주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967 년에 아랍 국가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세 다이안 장군을 일으켰어요. 그 분이 한쪽 눈이 애꾸눈 아닙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6 일동안, 왜 6 일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거든요. 아직 그들은 율법하에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6 일동안 마지막에 시리아 군대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임해 가지고 다 도망가버렸어요. 아랍이 쳐들어 왔지만 오히려 더 뺏았어요. 그래 가지고 예루살렘 동편을 뺏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내놓으라. 1967 년 전쟁 이전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쳐들어 와가지고 자기들이 당해놓고. 사실은 예루살렘을 다 차지했는데 양보했어요. 반만 차지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 6 일 전쟁할때 총알 자국이 말도 못하게 있어요 성벽에.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 정부가 되니까 이제는 1967 년 이전이 아니야 너희들 다 나가라 그래요. 때가 다 된거죠. 지난 주 설교? 다른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죠?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다이안 장군을 굉장히 무서워 했어요. 왜그런가면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 것인가를 나는 알고 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모든 잘못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책임이 없으시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옳으시다. 다니엘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썼죠.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 다이안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동편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찼다. 67 년에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되었다. 그래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15 절에 **[오 주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마 대환란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할 겁니다. 시편에 보면 셀라, 셀라가 나오죠? 그게 바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번성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찌하던지 저들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기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